

‘국회, 광주의 날’... 여야 함께 광주 현안·민생 해결 다짐

광주시, 각 정당과 정책협약...국힘 포함 ‘팀광주 의원’ 위촉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 대표 혁신정책 전국화 가속도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획한 ‘국회, 광주의 날’이 2일 개막했다. 이 행사를 통해 광주시는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한 뜻으로 뭉친데다, 광주시는 이날 여야 정당과 협약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 문제 해결을 위한 ‘팀광주 국회의원’도 첫선을 보였다.

◇전국 최초 ‘광주의 날’=광주시는 2일 서울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광주시는 각 정당과 정책협약 등을 맺는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지사를 비롯한 양부남·정진호·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군택·민행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민병덕·조계원·허중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수 국회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전하람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개막식이 끝난 뒤 국회에 마련된 정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도 함께 살펴봤다.

이날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국회, 광주의 날’을 응원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을 기원했다.

◇광주시 여·야 모두의 마음을 엮다=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식, 국민의힘 정책전달식을 열고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시는 또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의 날’ 첫날인 2일 광주시는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당의 ‘기본사회 모델’과 ‘에너지 전환’ 등 당의 새로운 사회 비전을 펼치는데 광주가 실증의 공간이 되겠다”며 “광주가 민주주의의 표준이 됐듯이 기본사회와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광주에서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기대 한다”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 광주에서 활짝 꽃피고 광주가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상호협력약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으며, 주된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강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열린 ‘국회, 광주의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협약으로 광주정신의 전국화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 광주발전을 논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은 3당이지만 광주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대 양당보다 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함께 하는 ‘팀 광주 국회의원’ 결성=광주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팀광주 국회의원 및 명예시민 위촉식’을 열고 위촉패와 광주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중 위원장과 안규백·김민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소희 의원 등 총 6명이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팀광주 국회의원들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대한민국 제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고도화,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 소중립 이행 등 광주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연고와 의정활동 방향 등을 고려해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독도 보며 애국가 제창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윤 대통령은 불참

우원식 의장 “정부, 국회 존중해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원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 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 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

는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령 처리 법안에 재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또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하는 하자”면서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

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며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여야는 보험료를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고 강조한 뒤 조속히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특위에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리얼미터,尹 국정 수행 긍정 29.6%·부정 66.7%

국힘 32.8%, 민주 42.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9%대를 기록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수

치이며, 2022년 8월 4번째주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타난 20%대 지지율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3%p 오른 66.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2%p ↓), 대구·경북(3.0%p ↓), 인천·경기(1.2%p ↓)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광주·전라(4.0%p ↑), 대전·세종·충청(2.9%p ↑)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4.2%p ↓), 30대(3.3%p ↓)에서 하락했고, 20대(3.6%p ↑), 40대(2.5%p ↑)는 상승했다.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

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2%p 하락했고, 민주당은 2.2%p 상승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3.9%, 진보당 2.2%, 새로운미래 1.6% 등이었다. 무당층은 7.4%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